

# 간 큰 서학개미,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담았다

## 해외주식 Click

美 금리인상 예고에 국제금리 급등 기술주 실적 기대감 높아 반등 전망 TQQQ 2.5억弗 유입... 순매수 1위

서학개미들이 나스닥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였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에 국제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부진하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

서양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50bp(1bp=0.01%p)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공격적인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부각돼 하락했다"며 "그러나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미국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반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PROSHARES ULTRAPRO QQQ ETF(TQQQ)	2억4672만
2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SOXL)	7315만
3	엔비디아	6562만
4	마이크로소프트	5914만
5	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 (BULZ)	5032만
6	알파벳 클래스 A	2906만
7	DIREXION DAILY TECHNOLOGY BULL 3X SHS ETF(TECL)	2842만
8	테슬라	2805만
9	PROSHARES ULTRA QQQ ETF(QLD)	2747만
10	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LABU)	2532만

\*기간: 1월 10~16일

/한국예탁결제원

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 10~16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5종목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레버리지 ETF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기술주로 구성된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

러졌다.

순매수 1위 종목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로 지난 주 2억4672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TQQQ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한다.

2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X ETF(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 SBULL 3X SHS ETF)이 이름을 올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엔비디아, AMD(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퀄컴, 인텔 등 미국 반도체회사 16종목이 포함돼 있다.

대형 기술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와 디렉시온 데일리 테크놀로지 볼 3X ETF(TECL·DIREXION DAILY TECHNOLOGY BULL 3X SHS ETF)는 각각 순매수 5위와 7위 자리를 차지했다. 각각 5032만달러, 2842만달러를 사들였다.

BULZ는 미국의 몬트리올 은행(BMO) 마이크로섹터스의 대표적인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페이팔, 알파벳 클

래스 A 등 15종목의 미국 기술주가 담겨 있다. TECL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엔비디아 등으로 BULZ와 달리 테슬라와 아마존은 포함돼 있지 않다.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PROSHARES ULTRA QQQ ETF)와 디렉시온 데일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바이오테크 볼 ETF(LABU·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에는 2747만달러, 2532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각각 순매수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QLD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2배를 추종한다. LABU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생명공학 선별 업종 지수를 3배로 추종하며, 180여종의 바이오 기업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6562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5914만달러) ▲알파벳 클래스 A(2906만달러) ▲테슬라(2805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등장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신라젠의 추락... 바이오株 잇단 수난에 투심 '냉각'

내달 18일 이내 상폐 여부 결정 주요 바이오업체, 약재 이어져

무려 17만 주주를 보유한 '국민 바이오주' 신라젠의 상장폐지 소식에 바이오주는 냉각 상태에 돌입했다.

신라젠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오스템임플란트 등 주요 바이오업체의 연이은 약재 소식에 바이오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 연상이 두드러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일인 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소액

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793만 9816주)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2020년말 기준 17만4186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92.6%(6625만3111주)에 달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최대주주인 엠투엔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쇼크다.

엠투엔은 신라젠 지분 18.23%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상태다. 이에 따라 개미들은 신라젠의 거래재계 기대감에 최근 엠투엔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베팅에 나섰다. 최근 엠투엔 주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전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1% 하락세로 출발해 소폭 상승했다가 21% 급락하며 결국 11% 하락 마감했다.

전날 개인들은 엠투엔을 218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순매수 규모이자 코스피 시장까지 포함해도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일 고점인 1만3300원을 고려했을 때 최대 마이너스 4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한달새 빗투도 늘어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날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매수단가는 1만1679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약 30.21%로 전망된다.

이에 현재 엠투엔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9.74% 떨어진 8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엠투엔은 1.53%의 수익률로 출발했으나 빠르게 하락 폭이 확대됐다.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기체결 물량이 360만주를 기록하고 있어 하한가 탈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약재가 쏟아지면서 바이오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바이오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헬스케어' 분류하면 같은 섹터로 묶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은 2조원에 달한다. 특히 회사는 신라젠과 유사한 횡령 혐의 발생으로 주가 거리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여부도 주목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셀트리온도 3년만에 분식회계 논란이 다시 떠오르면 주가가 급락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락티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앉아 하락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과창판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 ETF' 순자산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3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상장 이후 3거래일만이다. 이는 중국 외 지역에 상장돼 거래되는 전 세계 STAR50 추종 ETF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해당 ETF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에 투자한다. 과창판은 중국 혁신기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상하이거래소에 독립 시장으로 출범한 증권시장이다. 중국 정부가 신경제 전환을 위해 육성하는 반도체,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구성돼 있다.

ETF 추종지수는 과창판 종목 가운데 우량기업 50개로 구성된 'STAR50'이다. 전자 35%, IT 15%, 기계설비, 제약바이오가 각각 12% 등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최대 규모 파운드리 기업이자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위 기업인 'SMIC', 중국 2대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 'AMEC',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 팹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 신한금융투, 연세대 바이오지주회사와 MOU 주식결제대금 511.3조... 전년비 23% ↑

바이오분야 법인생태계 구축 목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전략적 업무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교육부 승인을 거쳐 지난 2021년 10월 설립됐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육성하며 대학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선순환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MOU를 통해



지난 18일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재영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가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금융 자문과 자회사들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투자를 우선한다. /박미경 기자

예탁원, 기관투자자 결제대금 276조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결제대금이 최초로 500조원을 넘겼다.

19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의 총액은 511조3000억원으로 전년(417조원)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235조 1000억원으로 전년(188조6000억원) 대비 24.7% 증가했으며, 주식기관투자자결제대금(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276조2000억원으로 전년(228조4000억원) 대비 21.0% 늘었다.

주식결제대금(511조3000억원)은 주

식거래대금(1경711조5000억원)의 4.8%에 불과하며,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대금의 차감효과는 1경200조2000억원(차감률 95.2%)에 이르렀다.

시장별로 장내 주식시장 결제의 차감효과는 7351조3000억원(차감률 96.9%), 주식기관투자자결제의 차감효과는 2848조9000억원(차감률 91.2%)이다.

예탁원은 "증권결제서비스의 차감효과로 시장 참가자는 최소의 자금으로 증권결제를 종료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결제규모 축소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 증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